

실버여성의 신체불편 및 의복불편 실태조사

김수아·강여선⁺·정명숙^{**}

이화여자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덕성여자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부교수⁺
한경대학교 의류산업학과 교수^{**}

Research on Body Discomfort and Clothing Inconvenience of Elderly Women

Soo-A Kim · Yeo-Sun Kang⁺ · Myoung-Sook Jung^{**}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Ewha Womans University
Associate Prof., Fashion Design, Duksung Women's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Industry,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2015. 7. 10. 접수; 2015. 10. 9. 수정; 2015. 10.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on status of physical discomfort and clothing life including clothing inconvenience for enhancing self-reliance of elderly women, newly emerging consumer.

The subject of research were 346 elderly women who aged 60 or older in Seoul and Seoul Suburbs. Survey consisted of questions about body discomfort, satisfaction and purchasing criteria of ready-to-wear, the inconvenience of cloth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Physical discomforts were generally associated with the ability to regulate body temperature. The biggest complaint of ready-to-wear was the price, and the next were the size and activity. In purchasing criteria, 'clothes to fit my body shape', 'clothes easy to put on and take off', 'comfortable clothes to work' showed high score. In clothing inconvenience, 'feel inconvenience due to several layers of clothing to avoid chilliness', 'feel heaviness in the waist due to tightness', 'feel chilliness even when wearing several layers of clothing in the winter' were the most uncomfortable parts. Subjects over the age of 80 years and needed the help of others in activities experienced more inconvenience in clothing life. It seems that body discomfort such as dullness of movement and loss of body temperature regulation capability due to aging had a influence on their clothing life. This problem could be improved by the adjustment of pattern allowance, the selection of the fastener, and the proper use of functional fabric.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a basis for development of the elderly women's clothing to increase convenience and mobility in everyday life.

Key Words: Elderly women(실버여성), Body discomfort(신체불편), Clothing inconvenience(의복불편)

I. 서론

본문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 출산율 감소에 따라 고령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연합(UN)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고령화

속도가 가장 빨라 2018년이면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였으며, 2026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율이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경기뉴스, 2014).

더불어 최근 사회 환경이 변화하면서 실버 세대의 의식에도 변화를 가져와 기존의 노인 세대와는 구별되는 뉴 실버 세대가 새로운 소비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은 젊은 마인드와 탄탄한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들의 여가 활동과 사회적 활동을 활발히 하며 보다 질 높은 삶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세대에 맞춰 뉴실버 관련 비즈니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G밸리, 2015). 이에 의류분야에서도 실버여성을 대상으로 한 의복만족도 조사 및 체형연구, 디자인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의복은 일상생활에서 항시 착용하고 하루에도 여러 번 착·탈의하여야 하므로 불편함이 없도록 디자인되어야 할 뿐 아니라 나아가 생활 사고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보조도구로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실버여성은 연령 증가로 인하여 신체적 변화에 따라 체형이 다양해지고 자율신경계의 능력저하로 인한 체온조절능력 저하, 촉각 등의 저하 등 신체적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게 되어(이난희, 김금화, 2007) 의생활에도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또한 외부 활동의 증가로 의복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어 특수한 상황에서의 기능복 외에도 이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평상복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실버여성 의생활 개선을 위하여 의복 착용실태와 실버여성들의 의복에 대한 수요를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소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뉴 실버세대 여성의 의생활의 불편을 감소시키면서 사고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생활의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실버전용 의복 패턴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버여성의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 불편요소를 파악하고, 기성복 만족도와 구입기준, 의복의 방해로 인한 의복 불편요소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일상생활에서의 편의성과 활동성을 높인 실버전용 의류의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실버여

성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실버여성의 신체불편

실버여성의 경우 노화를 겪으며 키가 작아지고 체간부가 굽어지고 등이 굽는 등의 체형변화를 겪게 되며 남성에 비해 체형의 다양화가 뚜렷해지는(이경화, 1995; 김인순, 2000; 김수아, 최혜선, 2003, 2004) 외형상의 특징을 가지게 되며 그 외 신체 기능상태의 저하도 나타나게 된다. 노인의 88%정도는 관절염, 요통, 좌골통 등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감소로 인해 자세유지가 어려워져 균형감각이 떨어지고 돌발상황에의 대처능력이 낮아져 낙상빈도가 높아지며, 질병의 유병률과 낙상비용 모두 남성 노인보다 여성 노인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이인수, 2006; 조선닷컴, 2015).

40대부터 시작하여 50세를 넘으면 색채식별능력이 저하되고 나이가 들면서 물체를 명확히 보거나 초점을 맞추는 능력, 색채인지, 시야 등에서 시력의 쇠퇴가 나타나며(고영준, 2011)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이동 시 시각 순응이나 빛이 눈에 들어왔을 때의 회복에도 시간이 걸린다(김수영 외, 2011). 55세 이후부터는 청각능력의 감퇴 또한 이루어져 음의 고저에 대한 변별력이 감소하며 후각은 80세 이후 노인의 75% 정도가 후각에 문제를 경험하게 되며, 촉각 또한 45세 이후부터 급격히 저하될 뿐 아니라(전길양, 임선영, 2008) 노화가 진행되면서 사물에 대한 인지능력이 변화하면서 반응시간이 느려지고 주의력, 집중력이 저하되어 상황에 대해 반응하는 시간이 느려지게 되는(고영준, 2011) 등 전반적인 신체의 불편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된다. 송영수 외(2015)의 연구에서도 70대 이상 고령자들의 신체적 건강수준을 나타내는 ADL과 IADL의 기능장애가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노화로 인한 신체의 기능 저하가 보편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버여성의 신체변화 및 기능쇠퇴로 인해 야기되는 일상생활의 불편 및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한남기와 박은희(2009)는 난연성 소재를 활용하여 화재 시 노인들의 육체적 기능 퇴화로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인여성 일상복 디자인을 개발하였으며, 박혜원과 이현영(2007)은 착탈의, 소재 등의 기능적 요소와 심미적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여가복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홍나영과 지윤영(2000)은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간병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거동 불편 노인에게 적합한 기능성 의복을 제안하였으며, 이진숙 외(2014)는 여성노인을 위한 충격보호용 팬츠 개발을 위한 낙상상황 및 후유증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실버여성의 특수한 환경에 도움을 주는 의복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왔다. 하지만 실버여성이 대체적으로 겪는 신체변화 및 위험요소로부터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평상복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평상복 개발의 기초자료로 60세 이상 실버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신체불편사항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2. 실버여성의 의복불편

여혜린과 권영숙(2005)의 연구에서 실버여성은 실버남성에 비해 전반적 기성복 만족도가 낮고 특히 높은 가격, 사이즈, 체형적합성에 불만이 높아 실버여성의 52.5%가 기성복을 수선하고 5.83%가 맞춤복을 입는 등 기성복의 부적합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방하연과 김희은(2013)은 기성복이 실버세대 신체의 길이 및 둘레항목 변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밈 또한 단추의 크기가 너무 작거나 개수가 많고, 지퍼 손잡이가 작아 불편함을 느끼므로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를 고려하여 실버웨어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난희와 김금화(2007)는 실버여성복은 형태학적인 체형특성을 고려하여 목 부위가 뜨고 스커트 앞이 올라가며 허리기준선의 뒤가 올라가는 현상을 배려한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실버여성 대상 기성복의 체형적합성 및 동작적합성의 문제점을 시사하였다.

김혜경(1999)은 실버세대의 많은 수가 노인장애를 겪게 되어 노화가 진행될수록 보행, 착탈의,

식사, 배뇨 등의 일상동작이 어려워지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치매 등과 같은 정신질환을 앓게 되는 경우는 타인의 간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실버세대에 대한 연구는 건강하고 아직 일할 수 있는 노인층과 타인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는 노인층으로 나누어 연구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60대 이상 노인인구를 중심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김광석, 2015) 현 시점에서 특정 장애가 없는 실버세대의 의생활의 자립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버여성을 활동에 자립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장거리 활동이 가능한 경우와 단거리 활동만이 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여 활동의 개인차에 따른 의복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의생활의 불편과 불안요소를 차단하는 실버여성복의 개발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실버전용 패턴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현 실버 여성들의 신체불편 및 의복불편 현황을 설문을 통해 평상복 착용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버여성들의 일반적 특성 및 신체불편 현황을 알아본다.

둘째, 실버여성들의 특성에 따른 기성복 만족도, 기성복 구입기준 및 의복불편 현황을 알아본다.

2.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설문조사는 2013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및 서울 근교의 노인종합복지관,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실버여성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진행되었으며 조사방법은 응답자의 설문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하여 조사자가 설문지에 대한 설명을 한 후 각 문항을 읽어주고 기록하는 개별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총 356부 중 기록 오류 및 응답이 미비한 것을 제

외하고 총 346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3. 조사문항 및 자료분석

조사문항은 선행연구(여혜린, 권영숙, 2005; 김차현, 박재욱, 2013)와 일상생활수행능력(Activity of Daily Living:ADL) 및 도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일상생활수행능력(Instrumental Activity of Daily Living: IADL)문항(Stein RK 외)을 참고하고 노인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5문항, 기성복 만족도 및 구입기준 26문항, 활동범위 및 활동가능성에 관한 2문항, 신체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22문항, 의복불편사항 파악을 위한 24문항, 총 7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9.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분포율,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ANOVA 분석에서 사후검정은 분산의 동질성 검정에서 등분산이 가정될 경우 Sheffe Test로,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을 경우 Games-Howell test로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표 1〉 조사 대상자의 신체특성

| 내용 | 구분 | 빈도 (%) | Mean | S.D. |
|-----|-------------------|-----------|---------|------|
| 나이 | 60s | 117(33.8) | 73.3세 | 7.5 |
| | 70s | 154(44.5) | | |
| | 80s | 75(21.7) | | |
| 키 | under 140cm | 5(1.4) | 153.3cm | 6.3 |
| | 140 - under 150cm | 69(19.9) | | |
| | 150 - under 160cm | 204(59.0) | | |
| | more than 160cm | 68(19.7) | | |
| 몸무게 | under 40kg | 3(0.9) | 57.3kg | 8.4 |
| | 40 - under 50kg | 48(13.9) | | |
| | 50 - under 60kg | 175(50.6) | | |
| | 60 - under 70kg | 89(25.7) | | |
| | more than 70kg | 31(9.0) | | |

1) 신체특성

여성 노인 346명의 신체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1). 연령은 평균 73.3세였으며 연령대별 분포는 60대가 117명으로 33.8%, 70대가 154명으로 44.5%, 80대가 75명으로 21.7%였다. 키는 평균이 153.3cm였으며 140cm미만이 5명으로 1.4%, 140cm 이상 150cm미만이 69명으로 19.9%, 150cm 이상 160cm미만이 204명으로 59.0%, 160cm 이상이 68명으로 19.7% 분포하였다. 몸무게는 평균 57.3kg이었으며 40kg미만은 3명으로 0.9%, 40kg 이상 50kg미만은 48명으로 13.9%, 50kg 이상 60kg미만에서는 175명, 50.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60kg 이상 70kg미만에서 89명, 25.7%으로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그 외 70kg 이상은 31명으로 0.9% 분포하였다.

2) 활동특성

활동범위에 대해 응답하는 문항에서 집이나 근거리 외출이 가능한 경우가 195명 56.3%, 장거리 외출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51명 43.6%로 나타났다(표 2).

활동가능정도의 경우, 혼자서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39명으로 69.1%가 혼자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107명으로 30.9%를 차지하였다. 혼자 모든 활동이 가능하

〈표 2〉 조사 대상자의 활동특성

(n=346, 단위: 명(%))

| 내용 | 구분 | 빈도 | 분포율 |
|--------|-------------|-----|-------|
| 활동범위 | 집/근거리 외출가능 | 195 | 56.3 |
| | 장거리 외출가능 | 151 | 43.6 |
| | 소계 | 346 | 100.0 |
| 활동가능정도 | 혼자 모든 활동 가능 | 239 | 69.1 |
| | 타인의 도움이 필요 | 107 | 30.9 |
| | 소계 | 346 | 100.0 |

〈표 3〉 연령대별 신체불편 평균비교

| 구분 | 60대 (n=117) | 70대 (n=154) | 80대 (n=75) | Total(N=346) | | F-value |
|-----------------------------|----------------|----------------|-----------------------|--------------|------|----------|
| | | | | Mean | S.D. | |
| 땀이 자주 남 | 3.76 | 3.61 | 3.84 | 3.71 | 1.06 | 1.38 |
| 추위를 많이 느낌 | 3.66 | 3.51 | 3.61 | 3.58 | 1.16 | 0.55 |
| 더위를 많이 느낌 | 3.88 | 3.82 | 3.99 | 3.88 | 1.10 | 0.55 |
| 감기에 자주 걸림 | 3.21 | 3.37 | 3.44 | 3.33 | 1.24 | 0.90 |
| 대소변이 조절이 잘 안되어 팬티에 지릴 때가 있음 | 1.97 B | 2.14 B | 2.52 A | 2.17 | 1.35 | 3.82* |
| 화장실을 자주 감 | 2.85 B | 3.03 AB | 3.45 A | 3.06 | 1.32 | 5.00** |
| 잘 안 보임 | 3.57 | 3.56 | 3.76 | 3.61 | 1.24 | 0.70 |
| 잘 안 들림 | 2.49 B | 2.97 A | 3.32 A | 2.88 | 1.41 | 8.88*** |
| 냄새를 잘 못 맡음 | 1.86 B | 2.12 A | 2.67 A | 2.15 | 1.27 | 9.64*** |
| 피부가 약해 쉽게 쏘리거나 피부염이 생김 | 2.08 B | 2.26 AB | 2.64 A ⁽¹⁾ | 2.28 | 1.41 | 3.73* |
| 다리 힘이 없어 걷기가 불편함 | 2.81 B | 3.17 B | 3.76 A ⁽¹⁾ | 3.18 | 1.37 | 11.53*** |
| 발걸음이 둔해지고 자주 넘어짐 | 2.52 B | 2.92 B | 3.53 A ⁽¹⁾ | 2.92 | 1.42 | 12.33*** |
| 활동 시 관절이 어긋난 적이 있음 | 2.35 B | 2.75 B | 3.23 A | 2.72 | 1.45 | 8.77*** |
| 팔을 들어올리기가 불편함 | 2.15 B | 2.47 AB | 2.87 A | 2.45 | 1.24 | 8.15*** |
| 가구나 사물에 자주 부딪힘 | 2.09 C | 2.47 B | 2.93 A ⁽¹⁾ | 2.44 | 1.26 | 11.05*** |
| 약 먹는 시간을 자주 놓침 | 2.03 B | 2.26 B | 2.99 A | 2.34 | 1.33 | 13.32*** |
| 약속 시간을 자주 잊어버림 | 2.21 B | 2.35 B | 2.93A | 2.43 | 1.31 | 7.66** |
| 음식물을 자주 흘림 | 1.99B | 2.36AB | 2.72A | 2.32 | 1.16 | 9.76*** |
| 손동작이 둔해 물건을 자주 놓침 | 2.03B | 2.51A | 2.89A | 2.43 | 1.26 | 11.85*** |
| 중심잡기가 어려워 쉽게 넘어짐 | 2.32B | 3.04A | 3.29A | 2.85 | 1.41 | 14.18*** |

*p<0.05, **p<0.01, ***p<0.001, A)B)C: Sheffe Test, Games-Howell test⁽¹⁾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은 평상시 착의하는 의생활실태 조사를 위한 본 연구목적에 따라 병원, 요양시설 등의 특수한 장소를 배제하고 주로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문화센터, 쇼핑센터 등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2. 대상자의 신체불편 현황

대상자의 신체불편에 대한 22개 문항에 대한 전체 평균, 표준편차 및 연령대별 비교 결과이다(표 3). 더위를 많이 느낌(3.88), 땀이 자주 남(3.71), 잘 안보임(3.61), 추위를 많이 느낌(3.58),

감기에 자주 걸림(3.33), 화장실을 자주 감(3.06) 순으로 6개 항목에서 3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더위나 추위를 많이 느끼고, 땀을 자주 흘리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항목은 모두 체온조절능력에 따른 문제로 의복 설계 시 소재의 선택,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설정에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모든 문항에서 60대와 80대는 명확하게 구분되었으나 ‘화장실을 자주 감’, ‘피부가 약해 쉽게 쓸리거나 피부염이 생김’, ‘팔을 들어올리기가 불편함’, ‘음식물을 자주 흘림’ 문항은 70대 집단이 별개로 구분되지 않아 70대에 들어선 후 변화가 시작되는 신체변화로 추측된다. 이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실제치수는 조금씩 변하지만 75세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체형변화가 없다는 이용재(2003)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그 외 ‘대소변이 조절이 잘 안되어 팬티에 지릴 때가 있음’, ‘다리 힘이 없어 걷기가 불편함’, ‘발걸음이 둔해지고 자주 넘어짐’, ‘활동 시 관절이 어긋난 적이 있음’, ‘약 먹는 시간을 자꾸 놓침’, ‘약속 시간을 자꾸 잊어버림’ 문항은 80대만 다른 집단으로 구분되어, 80대가 되어서야 나타나는 신체특성으로 보이며 민첩성과 정확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연령증가에 따른 활동둔화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비자 타겟에 80대가 포함된 경우 의복의 방해로 인해 보행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기성복 만족도

전체적인 기성복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평가 점수에서 가격과 맞음새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표 4), 이는 일상복을 조사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대체로 의복의 여유가 충분하고 생활하기 편한 원인이었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 덜 예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설문조사를 양로원이나 병원 등의 장소를 제외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장소 즉 노인종합복지관, 쇼핑센터, 교육센터 등에서 실시하여 응답자들이 체형의 변화가 심하지 않고 활동이 가능한 경우로 표집되

었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성복 만족도는 전반적인 점수보다는 항목간의 비교 해석에 더욱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성복 만족도에 대한 평균치는 가격(2.86), 맞음새(3.11), 디자인(3.26), 소재,관리(3.31), 활동성(3.37), 봉제상태(3.53), 내구성(3.74) 순서로 나타나 가격 면에서 가장 불만족하고 봉제상태와 내구성 등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전체 항목에서 가격의 불만 외에 맞음새에 가장 불만이 많다고 응답한 것은 실버여성의 체형 및 기능 저하와 같은 신체특성이 고려된 치수체계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1) 연령대별 비교

연령대별 기성복 만족도를 ANOVA분석한 결과, 가격, 디자인, 소재, 활동성, 관리, 봉제상태, 내구성에서 연령별 기성복 만족도 평균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맞음새 문항의 경우에는 ANOVA차이 검증에서는 유의확률 0.05수준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지만, Sheffe의 사후검증 결과로는 집단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자체가 기성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4〉 연령대별 기성복 만족도 평균비교

| Item | 60대 (N=117) | 70대 (N=154) | 80대 (n=75) | Total (N=346) | F-value |
|------|----------------|----------------|---------------|------------------|---------|
| 가격 | 2.92 | 2.79 | 2.92 | 2.86 | 0.64 |
| 디자인 | 3.15 | 3.36 | 3.23 | 3.26 | 1.39 |
| 소재 | 3.33 | 3.21 | 3.47 | 3.31 | 1.37 |
| 맞음새 | 2.90 A | 3.20 A | 3.25 A | 3.11 | 3.11* |
| 활동성 | 3.22 | 3.48 | 3.36 | 3.37 | 1.61 |
| 관리 | 3.21 | 3.38 | 3.33 | 3.31 | 0.85 |
| 봉제상태 | 3.39 | 3.62 | 3.59 | 3.53 | 1.63 |
| 내구성 | 3.68 | 3.69 | 3.93 | 3.74 | 1.56 |

*p(0.05, 5점 척도(매우 불만족한다 1-매우 만족한다 5))

2) 활동범위 집단별 비교

집/근거리 외출가능, 장거리 외출가능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활동범위별 기성복 만족도를 평

가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장거리 활동이 가능한 집단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만족도 평균치가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거리 외출 시 의복 착용시간이 길기 때문에 불편함을 장시간 느끼게 되므로 근거리 외출보다 더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장거리 외출 시 착용복장이 평상복보다 외출복 형태가 많아 더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T-test 결과 집단 간 0.001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 문항은 맞춤새, 활동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활동범위가 주로 좁이거나 근거리인 경우 외출복의 착용빈도 자체가 낮으며 활동이 다양하지 못해 의복의 맞춤새와 관련한 맞춤새, 활동성 등의 측면에서 기성복 불만족을 덜 체감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5> 활동범위 집단별 기성복 만족도 평균비교

| Item | 집/근거리 외출가능 (N=195) | 장거리 외출가능 (N=151) | Total (N=346) | T-value |
|------|--------------------|------------------|---------------|---------|
| 가격 | 2.91 | 2.79 | 2.86 | 0.98 |
| 디자인 | 3.34 | 3.16 | 3.26 | 1.52 |
| 소재 | 3.41 | 3.19 | 3.31 | 1.81 |
| 맞음새 | 3.35 | 2.79 | 3.11 | 4.62*** |
| 활동성 | 3.60 | 3.07 | 3.37 | 4.32*** |
| 관리 | 3.46 | 3.12 | 3.31 | 2.83** |
| 봉제상태 | 3.62 | 3.42 | 3.53 | 1.73 |
| 내구성 | 3.90 | 3.53 | 3.74 | 3.15** |

p(0.01, *p(0.001
5점척도(매우 불만족한다 1-매우 만족한다 5)

3) 활동가능정도 집단별 비교

혼자 모든 활동 가능한 집단, 가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 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여 활동가능 정도별 기성복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6). 8개 문항 중 의복의 활동성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서 높은 불만족 점수를 보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성을 배려하는 소재 선택 및 패턴의 설계가 요구된다.

<표 6> 활동가능정도 집단별 기성복 만족도 평균비교

| Item | 혼자 모든 활동 가능한 집단 (N=239)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 (N=107) | Total (N=346) | T-value |
|------|-------------------------|------------------------|---------------|---------|
| 가격 | 2.89 | 2.80 | 2.86 | 0.64 |
| 디자인 | 3.29 | 3.20 | 3.26 | 0.73 |
| 소재 | 3.29 | 3.35 | 3.31 | -0.41 |
| 맞음새 | 3.18 | 2.94 | 3.11 | 1.80 |
| 활동성 | 3.48 | 3.12 | 3.37 | 2.62* |
| 관리 | 3.36 | 3.21 | 3.31 | 1.18 |
| 봉제상태 | 3.56 | 3.48 | 3.53 | 0.69 |
| 내구성 | 3.73 | 3.75 | 3.74 | -0.12 |

*p(0.05, 5점 척도(매우 불만족한다 1-매우 만족한다 5)

4. 기성복 구입기준

실버여성이 기성복 구입 시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에 대해 알아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내 체형에 잘 맞는 옷’이 평균 4.49로 가장 높게 나타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체형변화를 최대한 보완할 수 있는 의복 디자인을 선택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얻으려 한다는 정삼호(198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실버 여성은 체형변화로 인한 기성복 외관 및 활동성에 가장 큰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변화된 이들의 체형에 적합한 패턴설계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입고 벗기 편한 옷’, ‘움직일 때 편한 옷’도 4.26, 4.37로 ‘매우 중요하다’ 이상의 점수를 보여 기성복 구입 시 일상생활 및 의생활에서의 편안함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이영주(2012)의 연구에서 노인여성 의복구매 시 편안함을 가장 중요시 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가벼운 옷’이 평균값 4.43, ‘잘 늘어나 편한 옷’이 4.38, ‘촉감이 부드러운 옷’ 4.34, ‘땀이나 분비물이 빨리 마르는 옷’ 4.22로 소재 관련 항목에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가볍고 스트레치성이 있으며 촉감이 부드럽고, 통풍이 잘 되는 원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구성 및 소재 관련 요소를 가장 중요한 구입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연령대별 기성복 구입기준 평균비교

| Item | 60대 (N=117) | 70대 (N=154) | 80대 (N=75) | Total (N=346) | F-value |
|-------------------|----------------|----------------|-----------------------|------------------|---------|
| 나에게 어울리는 옷 | 4.21 A | 3.94 AB | 3.80 B | 4.00 | 4.15* |
| 짧어보이는 옷 | 4.06 A | 3.88 AB | 3.63 B | 3.88 | 3.47* |
| 점잖아보이는 옷 | 3.83 | 3.66 | 3.56 | 3.70 | 1.51 |
| 유행에 맞는 옷 | 3.43 A | 3.36 AB | 3.00 B ⁽¹⁾ | 3.31 | 3.27* |
| 적절한 가격의 옷 | 4.16 | 4.25 | 4.32 | 4.24 | 0.68 |
| 내 체형에 잘 맞는 옷 | 4.44 | 4.51 | 4.54 | 4.49 | 0.29 |
| 내 체형의 단점을 감춰주는 옷 | 4.31 | 4.12 | 3.97 | 4.15 | 2.49 |
| 입고 벗기 편한 옷 | 4.09 B | 4.3 1AB | 4.41 A | 4.26 | 3.31* |
| 움직일 때 편한 옷 | 4.20 B | 4.39 AB | 4.60 A ⁽¹⁾ | 4.37 | 4.85** |
| 벨트·고무줄에 조이지 않는 옷 | 3.91 | 4.10 | 4.24 | 4.06 | 2.57 |
| 지퍼·단추등이 잡그기 쉬운 옷 | 3.94 | 4.11 | 4.23 | 4.08 | 2.20 |
| 잘 늘어나 편안한 옷 | 4.15 B | 4.46 A | 4.57 A | 4.38 | 6.84*** |
| 가벼운 옷 | 4.26 B | 4.47 AB | 4.61 A ⁽¹⁾ | 4.43 | 4.39** |
| 촉감이 부드러운 옷 | 4.27 | 4.34 | 4.43 | 4.34 | 0.56 |
| 땀이나 분비물이 빨리 마르는 옷 | 4.17 | 4.22 | 4.29 | 4.22 | 0.35 |
| 세탁이나 다림질이 쉬운 옷 | 4.14 | 4.05 | 4.12 | 4.09 | 0.33 |
| 봉제가 튼튼한 옷 | 3.91 | 3.94 | 4.00 | 3.95 | 0.17 |
| 주머니가 충분한 옷 | 3.27 B | 3.49 AB | 3.73 A | 3.47 | 3.57* |

*p<0.05, **p<0.01, ***p<0.001, A)B)C: Sheffe Test, Games-Howell test⁽¹⁾
5점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매우 중요하다 5)

1) 연령대별 비교

외모와 관련된 문항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욱 중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가격, 구성, 소재, 편의성 관련 문항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욱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여성의 연령이 낮을수록 유행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김점해와 이영주(200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짧어보이는 옷’, ‘유행에 맞는 옷’ 문항은 4.06, 3.43으로 60대가 80대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입고 벗기 편한 옷’, ‘움직일 때 편한 옷’, ‘잘 늘어나 편안한 옷’, ‘가벼운 옷’, ‘주머니가 충분한 옷’ 문항에서는 80대 점수가 4.41, 4.60, 4.57, 4.43, 3.47로 60대 보다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 연령대 높아진

다고 해서 의복관심도가 낮아지는는 않으며 의복의 활동성, 소재, 수납기능에 있어서 80대가 가장 중요한 구입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활동범위 집단별 비교

기성복 구입기준을 활동범위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T-test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장거리 외출가능한 집단 경우 집/근거리에서 활동하는 집단보다 ‘짧어보이는 옷’, ‘유행에 맞는 옷’, ‘내 체형의 단점을 감춰주는 옷’을 구입 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반면, 집/근거리 외출이 가능한 집단은 ‘입고 벗기 편한 옷’, ‘움직일 때 편한 옷’, ‘지퍼·단추

등이 잠그기 쉬운 옷'을 구입기준으로 더욱 중요시하였는데, 이는 활동이 자유로워 장거리 외출이 가능한 경우 외관지향적인 기준으로, 활동범위가 넓지 않은 경우 외모보다는 의복의 활동 및 편의지향적인 기준으로 구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대상자의 의복불편 현황

일상생활 중 의복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한 24개의 문항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표 11).

평균 분석 결과, '추워서 옷을 여러 겹 입으면 활동이 불편하다(3.75)', '허리둘레가 끼어 답답하다(3.34)', '겨울에 옷을 여러 겹 입어도 춥다(3.20)',

'가슴부분이 끼어 답답하다(3.15)', '여름에 얇은 옷을 입어도 덥다(3.11)', '옷의 시접이나 라벨이 피부에 닿아 불편하다(3.04)' 순으로 불편함을 나타내었다.

동작의 둔화, 복부비만, 체형의 굴신, 체온조절능력의 감퇴, 피부노화 등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이 의복활동에서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복패턴의 길이나 폭의 여유량 조절, 패스너의 선택, 고기능성 섬유 등의 적절한 사용 등의 의복설계를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1) 연령대별 의복불편

60대, 70대, 80세 이상 연령대별 의복불편에

〈표 8〉 활동범위 집단별 기성복 구입기준 평균비교

| Item | 집/근거리 외출가능 (N=195) | 장거리 외출가능 (N=151) | Total (N=346) | T-value |
|-------------------|--------------------------|------------------------|------------------|----------|
| 나에게 어울리는 옷 | 3.91 | 4.11 | 4.00 | -1.74 |
| 짧어보이는 옷 | 3.76 | 4.04 | 3.88 | -2.28* |
| 점잖아보이는 옷 | 3.68 | 3.72 | 3.70 | -.28 |
| 유행에 맞는 옷 | 3.14 | 3.52 | 3.31 | -2.90** |
| 적절한 가격의 옷 | 4.32 | 4.13 | 4.24 | 1.83 |
| 내 체형에 잘 맞는 옷 | 4.45 | 4.53 | 4.49 | -0.83 |
| 내 체형의 단점을 감춰주는 옷 | 3.98 | 4.38 | 4.15 | -3.58*** |
| 입고 벗기 편한 옷 | 4.39 | 4.08 | 4.26 | 3.27** |
| 움직일 때 편한 옷 | 4.49 | 4.21 | 4.37 | 2.87** |
| 벨트고무줄에 조이지 않는 옷 | 4.17 | 3.92 | 4.06 | 2.29* |
| 지퍼·단추 등이 잠그기 쉬운 옷 | 4.22 | 3.89 | 4.08 | 3.17** |
| 잘 늘어나 편안한 옷 | 4.49 | 4.24 | 4.38 | 2.57* |
| 가벼운 옷 | 4.45 | 4.40 | 4.43 | 0.46 |
| 촉감이 부드러운 옷 | 4.34 | 4.33 | 4.34 | 0.07 |
| 땀이나 분비물이 빨리 마르는 옷 | 4.26 | 4.17 | 4.22 | 0.78 |
| 세탁이나 다림질이 쉬운 옷 | 4.11 | 4.07 | 4.09 | 0.44 |
| 봉제가 튼튼한 옷 | 3.97 | 3.91 | 3.95 | 0.61 |
| 주머니가 충분한 옷 | 3.57 | 3.34 | 3.47 | 1.86 |

*p<0.05, **p<0.01, ***p<0.001, 5점 척도(전혀 중요하지 않다 1-매우 중요하다 5)

〈표 9〉 의복불편 기술통계

| Items | Mean (N=346) | S.D. |
|--------------------------------|--------------|------|
| 옷자락이 문손잡이 등 가구에 걸리거나 끼인다 | 2.34 | 1.16 |
| 바지자락이 밟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 2.36 | 1.21 |
|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 2.88 | 1.34 |
| 폼(가슴부분)이 끼어 답답하다 | 3.15 | 1.38 |
| 허리둘레가 끼어 답답하다 | 3.34 | 1.30 |
|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등이 나와 불편하다 | 2.73 | 1.23 |
| 겨울에 옷을 여러 겹 입어도 춥다 | 3.20 | 1.26 |
| 추워서 옷을 여러 겹 입으면 활동이 불편하다 | 3.75 | 1.15 |
|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바지 밑이 당긴다 | 1.66 | 1.11 |
| 소지품을 넣을 주머니가 부족하다 | 2.35 | 1.28 |
| 옷의 시접이나 라벨이 피부에 닿아 불편하다 | 3.04 | 1.36 |
| 소매부리가 걸리적 거리거나 음식이 묻어 지저분해진다 | 2.88 | 1.27 |
| 얇은 옷을 입어도 덥다 | 3.11 | 1.13 |
| 땀 흡수가 안 되어 몸이 축축하다 | 2.88 | 1.16 |
| 땀이 자주나 옷이 항상 젖어있다 | 2.75 | 1.23 |
| 옷에 냄새가 배어 불쾌하다 | 2.71 | 1.35 |
| 옷을 한참 입으면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 3.25 | 1.26 |
|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가 불편하다 | 2.99 | 1.23 |
| 비울 때 우산들 힘이 약해서 쉽게 옷이 젖고 축축해진다 | 2.79 | 1.46 |

〈표 10〉 연령대별 의복불편 평균비교

| Items | 60대 (N=117) | 70대 (N=154) | 80대 (N=75) | Total (N=346) | F-value |
|--------------------------------|-------------|-------------|------------|---------------|----------|
| 옷자락이 문손잡이 등 가구에 걸리거나 끼인다 | 2.13 B | 2.34 AB | 2.68 A | 2.34 | 5.26** |
| 바지자락이 밟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 2.15 B | 2.38 AB | 2.65 A | 2.36 | 3.98* |
|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 2.56 B | 2.84 B | 3.47 A | 2.88 | 11.19*** |
|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가 불편하다 | 2.71 B | 2.98 B | 3.47 A | 2.99 | 9.05*** |
| 비울 때 우산들 힘이 약해서 쉽게 옷이 젖고 축축해진다 | 2.49 B | 2.79 AB | 3.27 A | 2.79 | 6.70** |

*p<0.05, **p<0.01, ***p<0.001, A)B: Sheffe Test,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대한 평균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총 18개 문항 중 ‘옷자락이 문손잡이 등 가구에 걸리거나 끼인다’, ‘바지자락이 밟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가 불편하다’, ‘비울 때 우산들 힘이 약해서 쉽게 옷이 젖고 축축해진다’ 5개 문항에서 연령대별 유의차를 보여 연령이 높을수록 불편함을 더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 외 13개의 문항은 연령대별 불편정도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나 평균값은 더 높은 값을 나타낸 바 연령증가로 인해 심화되기 보다는 이미 60대부터 전 연령대에 거쳐 불편을 느끼는 부분으로 해석되며 이는 차후 60세 이상의 여성을 타겟으로 한 의복설계 전반에 적용되어야 할 부분으로 사료된다.

〈표 11〉 활동범위 집단별 의복불편 평균비교

| Items | 집/근거리 외출가능 (N=195) | 장거리 외출가능 (N=151) | Total (N=346) | T-value |
|--------------------------------|--------------------------|------------------------|------------------|---------|
| 옷자락이 문손잡이 등 가구에 걸리거나 끼인다 | 2.53 | 2.09 | 2.34 | 3.58*** |
| 바지자락이 밟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 2.54 | 2.13 | 2.36 | 3.26** |
|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 3.09 | 2.62 | 2.88 | 3.34** |
|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가 불편하다 | 3.25 | 2.66 | 2.99 | 4.53*** |
| 비올 때 우산들 힘이 약해서 쉽게 옷이 젖고 축축해진다 | 2.96 | 2.57 | 2.79 | 2.51* |

*p<0.05, **p<0.01, ***p<0.001, 5점 척도(전혀 불편하지 않다 1점-매우 불편하다 5점)

〈표 12〉 활동가능정도 집단별 의복불편 평균비교

| Items | 혼자 모든 활동이 가능한 집단 (N=239) |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 (N=107) | Total (N=346) | T-value |
|--------------------------------|--------------------------------------|------------------------------------|------------------|----------|
| 옷자락이 문손잡이 등 가구에 걸리거나 끼인다 | 2.23 | 2.59 | 2.34 | -2.67** |
| 바지자락이 밟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 2.18 | 2.78 | 2.36 | -4.37*** |
|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 2.64 | 3.43 | 2.88 | -5.48*** |
| 폼(가슴부분)이 끼어 답답하다 | 2.88 | 3.76 | 3.15 | -6.09*** |
| 허리둘레가 끼어 답답하다 | 3.11 | 3.84 | 3.34 | -5.29*** |
| 고개를 숙일 때마다 등이 나와 불편하다 | 2.54 | 3.13 | 2.73 | -4.43*** |
| 겨울에 옷을 여러 겹 입어도 춥다 | 2.98 | 3.68 | 3.20 | -5.20*** |
| 추워서 옷을 여러 겹 입으면 활동이 불편하다 | 3.59 | 4.11 | 3.75 | -4.49*** |
| 소지품을 넣을 주머니가 부족하다 | 1.49 | 2.02 | 2.35 | -3.74*** |
| 소매부리가 걸리거나 음식이 묻어 지저분해진다 | 2.85 | 3.48 | 2.88 | -4.09*** |
| 얇은 옷을 입어도 덥다 | 2.67 | 3.36 | 3.11 | -4.86*** |
| 땀 흡수가 안 되어 몸이 축축하다 | 3.03 | 3.30 | 2.88 | -2.07* |
| 옷에 냄새가 배어 불쾌하다 | 2.64 | 3.01 | 2.71 | -2.74** |
| 옷을 한참 입으면 답답하고 무겁게 느껴진다 | 2.47 | 3.26 | 3.25 | -5.25*** |
|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가 불편하다 | 3.04 | 3.74 | 2.99 | -5.36*** |
| 비올 때 우산들 힘이 약해서 쉽게 옷이 젖고 축축해진다 | 2.74 | 3.56 | 2.79 | -6.54*** |
| 기저귀를 차고 있어서 바지 밑이 당긴다 | 2.44 | 3.58 | 1.66 | -7.63*** |

p<0.01, *p<0.001, 5점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1점-매우 그렇다 5점)

2) 활동범위 집단별 의복불편

집/근거리 외출가능, 장거리 외출가능의 집단으로 활동범위 별 의복불편을 T-test로 비교한 결과(표 13) '옷자락이 문손잡이 등 가구에 걸리거나 끼인다', '바지자락이 밟혀 미끄러지거나 넘어진다', '화장실에서 바지를 벗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가 불편하다', '비

올 때 우산들 힘이 약해서 쉽게 옷이 젖고 축축해진다'의 5개 문항에서 두 집단의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장거리 외출이 가능한 대상자의 경우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은데 이는 신체불편이 적어 의복불편 또한 덜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집이나 근거리 활동만 가능한 경우는 스스로 활동을 충분히 하지만, 신체가 이미 불편한 상태로

활동반경에 한계가 있는 만큼 그로 인해 의복의 불편도 더 심각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활동가능정도 집단별 의복불편

3개의 문항을 제외한 16개 문항에서 활동가능 정도에 따라 의복불편 정도가 유의확률 0.05이상의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나(표 14),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집단이 의복에도 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에서의 활동 자립여부가 연령보다 더 의복불편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새로운 소비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뉴실버세대 여성의 의생활에서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실버전용 의복 패턴설계 및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60세 이상 실버여성 346명을 대상으로 개별인터뷰 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대상자의 신체 및 활동특성, 신체 불편사항, 기성복 만족도 및 기성복 구입기준, 의복의 방해로 인한 의복불편 현황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73.3세, 평균 키는 153.3cm, 평균 몸무게는 57.3kg, 평균 BMI는 24.4였으며 대체로 활동이 크게 불편하기 않아 50% 이상이 근거리 외출이 가능했고 90% 이상이 장거리 외출도 가능했으며 약 70%가 혼자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2. 신체 불편사항의 경우, '더위를 많이 느낌', '땀이 자주 남', '잘 안보임', '추위를 많이 느낌', '감기에 자주 걸림', '화장실을 자주 감' 순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더위나 추위를 많이 느끼고, 땀을 자주 흘리고 감기에 자주 걸린다는 항목은 모두 체온조절능력에 따른 문제이므로 체온 유지를 도울 수 있도록 소재의 선택,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 설정에 주의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기성복 만족도는 가격, 맞음새, 활동성, 디자인, 소재/관리, 봉제, 내구성 순으로 불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에서 가격 불만 외에 맞음새와 활동성에 대한 불만이 높고 소재, 관리, 봉제 및 내구성에 대한 불만이 낮은 점을 볼 때, 의복자체의 품질보다는 실버여성의 체형 및 기능 저하와 같은 신체특성을 고려한 의복에 대해 수요가 높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연령대별 기성복 만족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장거리 외출이 가능할수록 맞음새, 활동성에 불만족하였다. 활동가능정도에 따라서는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집단에서는 활동성의 불만족이 높게 나타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의복의 디자인 및 패턴 설계 시 특히 장시간 착용에 따른 피로도 증가와 활동성 저하를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4. 기성복 구입기준은 '내 체형에 잘 맞는 옷'이 평균 4.49점으로 가장 높아 실버여성 소비자들이 체형변화로 인하여 체형에 적합한 의복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가벼운 옷'이 평균값 4.43, '잘 늘어나 편안한 옷'이 4.38, '촉감이 부드러운 옷' 4.34로 소재 관련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나타내 활동성과 착용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장거리 외출이 가능할수록 유행, 체형의 단점커버 등 외모지향적인 요소에 영향을 받으며 반대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근거리 외출이 가능한 집단일수록 착탈의, 패스너 등 편의지향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버여성복은 이들의 체형변화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불편 및 활동제약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도록 패턴설계 및 원단부자재 선택에 반영하여 의생활 편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의복불편 평가 결과, '추워서 옷을 여러 겹 입으면 활동이 불편하다', '허리둘레가 끼어 답답하다', '겨울에 옷을 여러 겹 입어도 춥다', '가슴 부분이 끼어 답답하다', '여름에 얇은 옷을 입어도 덥다', '소매부리가 걸리거나 음식이 묻어 지저분하다' 순으로 불편함을 나타내었다. 연령대별 비교결과 80대에는 일상생활에서의 의복불편이 고조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히 80세 이상을 타겟으로 한 의복에서는 옷자락이 걸리거나 밟히지 않도록 고려해야 하며, 착탈의가 용이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방수기능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동작 둔화, 체온조

절능력의 감퇴 등 노화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이 의생활에서도 연장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의복패턴의 너비 및 길이 여유량 조절, 패스너의 선택, 활동성을 저하하지 않는 기능성 섬유적 적절한 사용 등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활동범위별 의복불편의 경우 집/근거리 외출집단에서 더 큰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이는 장거리 외출집단은 신체활동이 자유로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신체불편 또한 적은 집단이므로 의복불편 또한 덜 인지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반면 근거리 활동만 가능한 경우는 신체가 이미 불편한 상태로 그로 인해 의복의 불편도 더 실감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활동가능정도에 따라서는 17개 문항에서 집단별 유의차를 보여 활동에 타인의 도움이 많이 필요할수록 의복불편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스스로 거동이 불편한 집단의 생활실태를 분석하여 의생활 불편과 불안요소를 차단하는 실버의류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상품기획 시 운동능력이 현저히 감소하는 노년기 활동을 보완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의 도입 및 디지털 기능이 부가된 스마트 의류의 상용화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실버산업이 활성화되고 더불어 실버세대의 의복관심도가 높아지며 제품 구매력 또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체형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실버여성의 의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현재 기성복 불만족도, 기성복 구입기준 실태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신체 불편사항과 의복의 방해로부터 느끼는 불편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차후 실버전용 디자인 및 패턴 개발에 반영함으로써 기성복의 체형적합성 및 활동적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경기뉴스. 자료검색일 2014. 12. 5, 자료출처 <http://www.kgnews.co.kr>
고영준. (2011). 사용자 중심의 유니버설디자인 방법

- 과 사례, 경기: 이담북스.
김광석. (2015. 9. 14). 독거노인의 절대빈곤, 한국경제의 그늘. 주간동아. 자료검색일 2015. 9. 24, 자료출처 <http://weekly.donga.com>
김수아, 최혜선. (2003). 지수치를 이용한 노년 여성의 하반신 체형 유형화에 관한 연구. *복식*, 53(6), 117-130.
김수아, 최혜선. (2004). 지수치를 이용한 노년 여성의 상반신 체형 분류와 판별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8(7), 983-994.
김수아, 최혜선. (2006). 복부비만 노년 여성의 의복 패턴설계를 위한 체형연구.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0(12), 1690-1696.
김수영, 이의훈, 정승진, 장수지, 신주영. (2011). *실버산업의 이해*. 서울: 학지사.
김인순. (2000). 노년 여성의 체형특징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점해, 이영주. (2006). 노인 여성의 기성복 착용감과 의복행동. *한국생활과학회 하계학술발표논문집*, 113-114.
김차현, 박재욱. (2013). 뉴 실버 의류제품 요구속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5(1), 123-138.
김혜경. (1999). *신체장애와 특수의복*. 서울: 교문사.
문선정. (2008). 장애여성을 위한 유니버설 패션 디자인 개발. *복식*, 58(9), 142-150.
박혜원, 이현영. (2007).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여가복 디자인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지*, 11(4), 42-51.
방하연, 김희은. (2013). 일상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실버웨어 제작을 위한 설문조사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5(1), 147-155.
신라이프스타일이 등장한다, 어반맘, 사토리 세대, 노마드워커, 뉴실버. 자료검색일 2015. 4. 20, 자료출처 <http://gvalley.etnews.com>
송영수, 배남규, 조영채. (2015). 우리나라 고령자의 연령에 따른 신체적 기능(ADL, IADL)과 관련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6(3), 2002-2011.
여혜린, 권영숙. (2005). 노년기 의생활 실태 조사. *한국의류학회지*, 29(1), 177-188.
이난희, 김금화. (2007). 고령자(노인)의 체형특성과 의생활 실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36-39.
이경화. (1995). 노년여성의 흉부형태분석 및 브래지어 치수규격 설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주. (2012). 한국과 미국의 70세 이상 노인여성의 의복행동과 선호도 비교.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4(3), 51-65.
- 이용재. (2003). 노년기 여성의 체형에 관한 연구 65~75세 연령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수. (2006). 21세기 노인복지론(개정2판). 서울: 대왕사.
- 이진숙, 박정현, 이정란. (2014). 여성노인의 낙상실태 및 충격보호팬츠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6(6), 945-953.
- 전길양, 임선영. (2008). *노인케어의 이해*. 서울: 도서출판 구상.
- 정삼호. (1988). 성인여성의 의복디자인 선호도와 의복태도에 관한 연구-신체적 조건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생활문화사업연구소 가정문화논총*, 제2집, 61-83.
- 한남기, 박은희. (2009). 난연성 소재를 활용한 노인 여성 일상복 디자인 개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 추계학술대회논문집*, 118-119.
- 홍나영, 지윤영. (2000). 거동 불편 노인에게 대한 기능성 의복 연구(2): 서울, 경인 지역 노인 전문 요양 시설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8(6), 899-914.
-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落傷... 하루 30분씩 '한발서기' 운동. 조선닷컴. 자료검색일 2015. 4. 4.,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
- Stein RK, Gortmaker SL, Perrin EC, Perrin MJ, Pless IB, Walker DK Wertzman. (1987). Severity of illness: concept and measurements. *Research Consortium On Chronic Illness In Childhood*, 33(8574), 1506-1509.